

휴대폰을 삼킨 남성



▲ 사진=remonews.com

복통을 호소하던 한 이집트 남성의 배에서 휴대폰이 나왔다.

이집트 아스완대학병원 의료진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던 익명의 환자 배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확인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물질은 휴대폰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상태는 심각했다. 위장에 꼭 낀 휴대폰 때문에 장내 곳곳에 감염이 발생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곧장 남성의 위장에서 휴대폰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으며, 환자는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실로 돌아갔다.

이 남성은 6개월 전 휴대폰을 삼켰으며, 휴대폰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오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휴대폰은 위장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복통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다. 이 남성이 왜 휴대폰을 삼킨 건지, 또 현재 상태는 어떤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몇 달 전 코소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코소보 프리스타에 사는 33세 남성 역시 휴대폰을 통째로 삼켰다가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모조품인 휴대폰 배터리에서 부식성 물질이 누출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서둘러 휴대폰 제거에 나섰다.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위장 속을 살피며 휴대폰을 세 조각으로 쪼갰다.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2시간에 걸쳐 휴대폰을 제거했으며 합병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내에서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 컸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남성 역시 휴대폰을 삼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직한 도둑'을 찾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직한' 도둑이 일자리를 얻게 될 기회를 얻었다.

지난 12일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에 있는 한 베이커리에 는 누군가 몰래 놓고 나간 메모와 10유로(약 1만3,800원) 지폐 1장이 놓여 있었다.



▲ 사진=larepubblica.pe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저번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도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메모와 함께 빵값 10유로를 놓고 간 것이다. 이 메모를 발견할 때까지 베이커리 측은 도둑을 맞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베이커리 측은 도둑이 남긴 메모와 지폐의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도둑을 찾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팔로워들에게 당부하기 시작했다. 베이커리 측이 도둑 찾기에 나선 건 그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기 위해서였다. 한 종업원은 "만나 뵙고 가능하다면 취업의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게 사장님의 뜻"이라며 "당사자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베이커리의 매니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원 대부분이 청년이지만 성별과 나이, 인종 따위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직하고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다른 조건을 불문하고) 우리와 함께하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도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베이커리 측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베이커리 측은 "꼭 나타나셔야 (우리도) 사람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지원한다면 서로를 돕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강타한 자몽 만한 거대 우박

호주 퀸즐랜드주 매카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큰 우박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다.



▲ 사진=Instagram(samyj_412)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매카이 북부 알보루 지역에서는 지름이 16cm에 달하는 우박이 관측됐다. 지름이 12~14cm의 우박도 많았다.

기상청은 "16cm의 우박은 호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큰 것"이라며 "그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10월 브리즈번 남서부 외곽에서 관측된 크기 14cm의 우박이 가장 큰 것이었다.

SNS에는 어른 주먹만한 혹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자몽만한 크기의 우박이 담긴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람들은 이번에 내린 우박을 두고 '살인 얼

음' (killer ice), '우박이 아닌 흥기' 라고 표현했다. 16cm의 초대형 우박은 도시 곳곳에 피해를 유발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지붕과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기도 했다.

가디언은 "통상 '거대 우박' (Giant Hail)은 지름 5cm 이상으로 정의하는데, 특정 기상환경에서만 만들어지므로 극히 드물다"면서 "골프공 크기의 우박은 폭우와 섞여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호주 보험 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퀸즐랜드의 많은 보험 계약자가 피해와 관련한 보상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우박 폭풍은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단 몇 분 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